**[환경일보] "국민연금도 사회책임투자 확대"**

2013-7-8

세계 3위 규모의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. 규모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제대로 된 사회책임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공시 의무가 법으로 확대돼야 한다.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와 공시 규정 법제화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자 이목희 국회의원(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)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,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가 주관한 ‘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와 공시 법제화를 위한 대토론회’가 지난 2일 오전에 국회에서 열렸다.

기사전문보기  
<http://www.hkbs.co.kr/hkbs/news.php?mid=1&treec=245&r=view&uid=266559>

**[매일경제] <마켓레이더> '착한 기업'이 살아남는 시대**

2013-7-11

최근 대주주 횡령, 노사분규, 공장 폭발, 환경오염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행동으로 해당 기업의 주주뿐 아니라 직원과 소비자,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많다. 또한 거대 유통기업의 물량 밀어내기 영업,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독식, 계열사 일감 밀어주기 등 `갑`의 횡포에 대해 국민 여론이 따갑다.

기사전문보기  
<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3&no=572374>

**[INVESTSA magazine] ESG thinking now a Business imperative**

2013-6-20

Investment managers have started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 (ESG) value chain as part of their advisory mandate, which is no longer simply a ‘nice to have’ or new tool in the business development marketing kit.

A company’s financial metrics provide a good indication of shorter-term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, but little insight in terms of how the company will survive in the longer term.  This is especially pertinent if the subject being evaluated is a large company into which billions of rands of pensioners funds have been allocated.

기사전문보기  
<http://www.investsa.co.za/esg-thinking-now-a-business-imperative/#more>